장로들과 책임 형제들로서 앞장섬

(토요일—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앞장서서 기도의 사람이 됨

성경: 마 6:9-13, 14:19, 22-23, 6:6

Ⅰ. 주님께서 본으로서 제시하신 기도의 예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의 갈망인 천국을 더욱더 추구하도록 하며, 우리에게 아버지의 큰 기쁨을 위해 천국의 가장 높고 엄격한 모든 요구들을 이루도록 은혜의 신성한 공급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마 6:9-13.

A.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마 6:9.

1. 거룩하게 되는 것은 속된 모든 것에서 분별되고 구별되는 것이다—비교 엡 1:4.
2.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생활, 곧 속된 것에서 분별되고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적셔진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그분을 표현해야 한다—벧전 3:15-16, 엡 5:26, 히 12:10, 벧후 1:4, 비교 겔 36:21.

B. 우리는 아버지의 하늘에 속한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마 6:10상.

1.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인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워졌었다(겔 28:13-14). 따라서 그는 이 세상의 왕이라고 불리며(요 12:31) 이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그의 손에 쥐고 있다(눅 4:6).
2.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 임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왕국의 실재 안에 살면서,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롬 14:17.

C. 우리는 아버지의 신성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마 6:10하.

1. 신성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 곧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다—비교 마 8:9상, 롬 5:17.
2. 하나님의 뜻은 구약의 모든 제물들의 대치물이신 그리스도를 얻으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몸의 생활을 살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려,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이다—히 10:5-10, 롬 12:2, 5, 엡 1:5, 9-11.

D. 하나의 본으로서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관심하고, 우리의 필요는 다음으로 관심한다—마 6:11.

1. 이름과 왕국과 뜻, 이 세 가지는 한 분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이다.
   a. 이름은 아버지께 속한 것인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왕국은 아들께 속하고, 뜻은 그 영께 속한다.
   b.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기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기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2.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내일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마 6:34). 주님은 그들이 오늘의 필요를 위해서만, 즉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가리킨다.

3. 왕국 백성은 그들이 저장한 것을 의지해 살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아버지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E. 하나의 본인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우리의 실패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마 6:12.

F. 하나의 본으로서 이 기도는 왕국 백성이 악한 자와 악한 것들에서 구출받는 것을 관심한다—마 6:13상.

1. 왕국 백성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 마귀와 또 마귀에게서 나온 악에서 구출되도록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

2. 주님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가리킨다—비교 마 26:41, 고전 10:13.

G. 하나의 본으로서 이 기도는 왕국 백성이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것에 대해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마 6:13하.

1. 왕국은 아들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영역이다. 능력은 그 영께 속한 것이며, 그 영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를 수행하신다—비교 마 12:28.

2.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삼일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또한 삼일 하나님으로 끝마치지만, 그 순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시작해서 아들과 영과 아버지로 끝마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이처럼, 주님께서 그분의 최고의 가르침에서 가르치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마친다. 아버지 하나님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모두이시다—비교 엡 4:6, 고전 15:28.

Ⅱ. 주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어 그분에게서 배우게 하셨다—마 14:19, 11:29.

A.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기는 쉽지만, 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분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더욱 깊고 중대한 생명의 공과들을 알려면 계시가 필요하다—비교 마 11:25.

B. 마태복음 14장 19절은 그분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또한 그것들을 축복하시려고 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셨다고 말한다.

1. '하늘을 우러러보신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근원이신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를 우러러보신 것을 가리킨다.

a.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이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음을 가리킨다. 보냄받은 분이 아니라 보낸 분이신 아버지께서 마땅히 축복의 근원이셔야 한다—비교 롬 11:36.

b.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리 잘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보내신 분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공급의 통로가

될 수 있다—비교 마 14:19하, 민 6:22-27.

2.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러러보신 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신 아들로서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아버지를 신뢰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요 10:30.
   a.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역에서 모든 것을 의미한다—비교 고전 2:3-4.
   b. 축복은 다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의해서만 온다—비교 고후 1:8-9.
3.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요 5:19, 비교 마 16:24.
   a.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어떤 일이든 스스로 하려는 의도를 갖지 말고, 모든 것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한다.
   b.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또 다른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한다—빌 1:19-21상.
4. 주님은 그분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구하셨다—요 5:30하, 6:38, 마 26:39, 42.
   a. 주님은 그분의 의사와 의도와 목적을 부인하셨다.
   b. 우리 모두는 다음 한 가지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즉 우리는 어떤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을 때, 그것을 우리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는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의사와 목적과 취지와 목표와 의도를 구하며 가야 한다.
5. 주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다—요 7:18, 5:41, 비교 12:43.
   a. 야심을 갖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비교 요삼 9.
   b. 우리는 자신의 자아와 목적과 야심이 우리의 일에서 파괴하는 세 마리의 큰 '벌레'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을 미워하기를 배워야 한다.
   c.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항상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목적을 거절하며, 우리의 야심을 포기해야 한다—마 16:24.

C. 기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마 14:23, 비교 눅 6:12.

1. 주님은 무리와 함께 기적의 결과 안에 머무시지 않았고, 그들을 떠나 홀로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하시며 기도하셨다.
   a. '홀로'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깊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이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셨음을 의미한다.
   b. 주님은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려고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떠나게 하셨다—마 14:22-23.
   c. 그분은 천국을 세우기 위하여 땅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시기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셔야 했다.
2. 주님은 우리에게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마 6:6.
   a.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홀로 주님께 기도할 때만큼 깊게 주님을 누릴 수 없다. 왕국 백성은 반드시 골방에서 기도하는 체험을 가지면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접촉하고, 아버지를 은밀한 가운데 누리는 체험을 하며, 그분에게서 은밀한 응답을 받아야 한다.

b. 자아는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일하기를 즐긴다. 자아는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육체는 주목받기를 좋아한다.

c.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알리지 않은 채로 매일 기도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항상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보상을 잃을 뿐 아니라, 생명이 자라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비교 13:6.

3. 우리는 무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을 떠나서 더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 무리에게서 분별되고 홀로 아버지와 함께하며 은밀히 아버지와 친밀한 교통을 갖기를 배워야 한다.
4. 주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은, 기적의 결과를 누리는 것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어, 그들이 썩어 없어지는 음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음식을 추구하게 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을 가리킨다—요 6:27.
5. 그분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은 또한 그분께서 기적으로 음식을 공급하신 오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지에 관해서 아버지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기 원하셨음을 가리킨다.
6. 이러한 공과들은 내재적이고 보다 깊으며 생명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사람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서 이러한 산 공과들을 배워야 한다.

사역의 말씀에서의 발췌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에서
제자들을 그분에게서 배우도록 훈련시키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취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하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는 기적에서, 그분은 제자들을 그분에게서 배우도록 훈련시키셨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분이 그들의 본이셨음을 가리킨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은 주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취하여 축복하려고 하셨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셨다고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보심으로써 음식을 축복하셨다. '하늘을 우러러보신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근원이신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를 우러러보신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이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음을 가리킨다. 그분은 보냄을 받은 분이시다. 보냄을 받은 분은 축복의 근원이 아니시다. 보내신 분이신 아버지께서 축복의 근원이시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큰 공과가 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무(無)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행하신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본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러러보셨으며, 제자들 앞에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복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축복하신 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다. 의심할 바 없이, 그분께서 행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분에게서 배워야 하는 본이었다. 이러한 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보내는 분이 아니요, 보내시는 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보내시는 분, 곧 근원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어서 유익을 얻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큰 공과이다.

어떤 곳에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받은 한 동역자는 수년 동안 주님을 위해 말해왔으므로 말씀 전하는 법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이런 종류의 태도를 떨쳐버리고 우리 자신이 근원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축복이 오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할 수 있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얼마나 잘 알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일에 그분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심지어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근원이신 아버지를 우러러보신 주님에게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음식을 축복할 때, 축복의 근원을 우러러봄으로 축복해야 한다.

아버지와 하나이심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러러보신 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아들로서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아버지를 신뢰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요 10:30).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 말할 때마다, 내가 주님과 하나이며 주님을 신뢰한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역에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말씀을 공급하러 갈 때, 우리 자신 안에 머무르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끝난 것이다. 축복은 다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음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요 5:19). 이것 또한 제자들에게 하나의 본이었다. 그분을 통해 온 우주가 창조되었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그분께서 매우 많이 가르치셨던 자아 부인이다. 그분은 누구든지 그분을 따르려거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마 16:24). 그분은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다.

대학에서 학식이 있는 교수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이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려고 많은 것을 행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의 교수와 같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사판인 오늘날의 하나님-사람들이다. 우리는 자아를 부인해야 하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를 갖지 말고,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하려고 하는 의도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으로써 자아를 부인하라는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다.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심

주님은 그분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구하셨다(요 5:30하). 먼저, 그분은 자아를 부인하셨다. 둘째로, 주님은 그분의 의사와 의도와 목적을 부인하셨다. 그분은 오직 그분을 보내신 분의 뜻만을 구하셨다. 우리 모두는 다음 한 가지 것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즉 우리는 어떤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을 때, 그것을 우리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는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며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며 가는가? 워치만 니 형제님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한 형제를 보낼 때, 그 형제가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기회로 취할까봐 항상 염려하였다.

어느 날 나는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니 형제님이 내게 "위트니스 형제님, 어떤 목적으로 형제님은 항저우에 가려고 합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그곳에 있는 형제를 방문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것이 잘못된 대답이라고 말했다. 대신에, 주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간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다만 형제를 방문하러 간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들을 방문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의 목적, 목표, 생각을 갖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보내시는 주님의 의사와 목적과 취지와 의도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많은 배움을 필요로 한다.

종종 어떤 형제들은 나에게 어떤 곳을 방문해달라는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고 묻는다. 내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그곳에 가는 것이 다만 주님의 목적, 주님의 목표, 주님의 의사, 주님의 의도, 곧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도와 뜻을 이루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인가?"이다. 우리 자신의 의도를 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님, 제 자신의 의도와 의사에 따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나가는 데서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주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의사나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의 관념이나 자신의 의도를 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순수하게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심

첫 번째 하나님-사람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다(요 7:18). 나는 니 형제님과 약 이십 년간 함께 있었다.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동역자들 가운데 야심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야심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항상 야심이 있다. 한 형제는 장로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을 수 있다. 장로가 되기 위하여 그는 먼저 집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집사가 되는 것은 장로가 되기 위한 예비 단계이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식의 야심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며 같은 죄, 같은 질병에 걸려 있다. 칠 년 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배역은 전적으로 야심 때문이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우리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이 야심으로 쓸모없게 된 것을 보았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나의 자아와 나의 의도를 처리하는 비결을 배웠고, 이러한 비결의 도움으로 나는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 이 구절의 문맥에 따르면, 주님은 그들에게 만약 그들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분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셨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자아와 목적과 야심이 우리의 일을 파괴하는 세 마리의 큰 '벌레'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항상 주님을 위해 사용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목적을 거절하며, 우리의 야심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갖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이 세 가지, 즉 자아가 없고 목적이 없고 야심이 없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의 목적을 거절하며 우리의 야심을 버림으로

써 다만 그분을 위해 수고하며 일하는 것만을 알아야 한다. 자아와 목적과 야심은 우리 안에 있는 세 마리의 뱀이나 전갈과 같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미워하기를 배워야 한다.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심

기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마 14:23, 비교 눅 6:12).

무리와 함께 기적의 결과에 머무르지 않으심

주님은 무리와 함께 기적의 결과 안에 머무르시지 않고 그들을 떠나 홀로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하시며 기도하셨다. 만약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바로 그곳을 떠나겠는가, 아니면 그 성공 안에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 머물겠는가? 우리는 주 예수님의 본을 보고 따라야 한다. 그분은 자신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결과에 머무르지 않으셨다. 대신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홀로'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깊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러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음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알리셨다면,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갔을 것이다. 그분은 기도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위해 홀로 떠나셨다. 나는 이 세 표현,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기도 안에서'를 좋아한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훈련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주님의 본을 배워야 한다. 그분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신 것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셨음을 뜻한다. 그분께서 산 위로 올라가신 것은 기도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음을 뜻한다.

다른 사람들과 기도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혼자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홀로 주님께 기도할 때만큼 깊게 주님을 누릴 수 없다. 심지어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문을 닫고 혼자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마 6:6). 그럴 때 우리는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친근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가까운지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무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을 떠나서 더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낮은 곳에 있는 땅에 속한 것들을 멀리 떠나서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무리로부터 분별되어 높은 곳에 가서, 홀로 아버지와 함께하고, 은밀히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산 위에서 기도하는 것의 의미이다.

기적의 결과를 누리는 것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구함

우리는 왜 주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 곧바로 산으로 가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은 그 이유를 제시한다. 이 구절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께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심을 보여 준다. 주님은 음식을 먹은 이들에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셨다고 믿는다. "아버지, 당신의 축복 아래 당신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축복하심으로 당신은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들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만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앙망하오니 그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

을 구하도록 하소서. 아버지, 당신은 제가 당신의 보냄을 받은 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오직 저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이렇게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만 제가 물질적인 음식을 그들에게 먹이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속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들을 더욱 축복하시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믿는다.

그분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은, 기적의 결과를 누리는 것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어, 그들이 썩어 없어지는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추구하고,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확증을 받으셨으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도록 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이다. 오천 명이 그분에 의해 먹고 배불렀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능력 있는 사람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사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시고 확증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분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바로 그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은 요한복음 6장에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셨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심을 계시하신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이 떡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요 6:63하) 요한복음 3장 34절은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며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한다. 주님을 이런 방식으로 알려면 계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홀로 산 위에서 기도하셨다.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으심

그분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은 또한 그분께서 기적으로 음식을 공급하신 오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지에 관해서 어떤 가르침을 아버지에게서 받기 원하셨음을 가리킨다.

마태복음 14장에 대한 이러한 결정 연구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내재적인 의미를 보기 위해 주님에게서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는 것이 필요한지를 볼 수 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기는 쉽지만, 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분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더욱 깊고 중대한 생명의 공과들을 알려면 계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과는 내재적이며, 더욱 깊고, 생명에 속한 것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기적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 단지 주님의 외적인 행하심에 감탄할 뿐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신 방식에서 주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생명의 공과들에 관한 모든 세부 항목들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한다. 우리는 하나님-사람의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서 이러한 산 공과들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사람의 생활,* 184-193쪽)